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권사·집사 선거 임박하다

### -5월26일 (주) 선거-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여 온 5대 권사 및 7기 집사 선거일과 선거 규정이 당회 를 통과하여 제시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할 5대 권사는 40명, 7기 집사는 20명으로 오는 5월 26일(주) 찬

양예배 후 공동의회 실시되며 우리교회 등록교인으로 세례교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 석하여 투표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당회가 심의한 권사 및 집사 선거의 기준은 다음 의 표와 같으므로 성도들은 숙지하고 기도와 관심을 갖고 선거를 준비한다.

구 분	집 사	권 사	
자 격	나이	30세 이상된 남자	50세 이상된 여자
	신 력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이상 경과 한 서리집사	입교인으로 흠 없이 7년이상 경과 한 서리집사
	성 경	딤편 3:8~13절 해당자	딤편 3:8~11절 해당자
	모 범	신덕이 있고 봉사에 모범된 자	신덕이 있고 심방과 봉사에 모범된 자
이명애 온 타교회 직분자	해당자로 본 교회 등록 1년 이상된 자	해당자로 본 교회 등록 1년 이상된 자	
임 명 절 차	추천	제직회	교역자·장로
	심사	당회	교역자회 → 당회
	투표 및 결의	공동의회 과반수	공동의회 과반수
	훈련	직분자 훈련, 집사후보교육(6개월), 당회 주관 집사고시	직분자훈련, 권사후보교육(6개월), 당회 주관 집사고시

## 휠체어 좀 주세요

오늘은 장애인의 주일이다. 우리 주변에는 선천적으로나 혹은 각종 사고 등의 후천적 인 원인으로 장애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모두가 기도하여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며 주위의 소외된 장애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교회도 지체장애인을 위한 사랑부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에바다부를 개설하여 장애인의 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 현재 사랑부는 102호실에서 별도의 예 배를 드리고 있으며 에바다부는 2부 예배시간에 본당 2층에서 지정된 좌석에서 교사들 과 함께 수화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랑부에서는 휠체어 가구를 원하고 있다. 1대 에 17만원으로 지원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또는 현금시간에 할 수 있다.

오늘 사랑부에서는 t-shirt를 사랑부 학생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그리고 찬양예배 시에 에바다부 수화특별순서가 있다.

## 가족찬양대회 열린다

교회는 생명이 충만한 아름다운 5월에 하나님께 제정해주신 가정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모든 가정에 대화와 웃음과 행복이 샘솟듯 하길 바라는 심정으로 '가족찬양대회' 를 준비하며 가족이 모여 찬양대회를 준비함으로 모두가 하나되고 서로를 깊이 만나는 축복의 장이 되기를 기도한다.

예선: 5월11일(토)까지 각 교구별 예선으로 2가정 선정

본선: 5월17일(금)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수상자발표: 5월19일(주) 찬양예배시

찬양준비: 자유곡 1곡

대상: 서울교회 교인으로 가족 3인 이상, 친척 포함 가능하며 3대 이상이 출전하면 가 산점 부과

## 교구 일꾼 수련회

### 5월 16일 양수리 수양관에서

교회는 금년도 전반기 교구일꾼 수련회를 오는 5월16일(목) 양수리수양관에서 갖는다. 참석대상은 교구장, 간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권찰 등이다.

## 9교구 가족소개회 시간

### 오늘 찬양예배시

교회는 교구식구들의 친목과 연합을 위해 매월 3째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교구 가족 을 교회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번 달은 9교구 순서로 교구 전가족을 교회와 성도 앞에 소개하고 특별찬양을 드리 게 된다. 연습은 오늘 오후 3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있다.

### 기도합주단 결성 현황

다니엘 기도회: 박연순 권사 외 5명    클로리아 기도합주단: 이영자 집사 외 7명  
금요 기도합주단: 권윤경 집사 외 5명    (다음주 계속)

## 가족예배 개근학생 시상식 갖는다

### -오늘 1부 예배 시간에-

우리교회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1부 가족예배때 학생들의 빠짐없 는 출석을 위해 출석카드를 연초에 배부한바 있다. 이제 1/4분기가 지나 그 동안 가족 예배에 개근한 한 학생들이 많아 오늘 1부 예배시간에 시상을 하며 칭찬과 격려를 한다. 개근학생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부예배에 참여치 않는 유아부와 유치부도 시상한다.

유년부 (22명) - 1학년: 이예진, 김도현, 김신영, 이인, 박연경, 전주영, 이소운

2학년: 김하영, 김성은, 박찬우, 김나영, 정성민, 이태훈

3학년: 정승세, 최호준, 오서진, 윤이진, 이어래, 권혜리, 진원식, 이명찬, 김도형

초등부 (16명) - 박마리아, 박유란, 곽지승, 김신영, 김소연, 권보화, 이상휴, 이상화, 조운수, 유연경, 최소영, 김주영, 최승우, 유민지, 권강훈, 박찬우

중등부 (12명) - 차용환, 김명준, 강윤경, 권성우, 김시원, 박찬서, 오경식, 김용훈, 김보연, 임연주, 인사라, 박연정

고등부 (6명) - 최계우, 유건호, 조형준, 인요셉, 방자혜, 최문주

유아부 (7명) - 황여경, 이준우, 고하진, 고하영, 윤지수, 장한성, 박지원

유치부 (16명) - 박은나라, 박연준, 이세민, 장정현, 김현영, 김지영, 이상백, 최지혜, 이수민, 고성민, 이광, 박소연, 김승연, 김성경, 윤진원, 윤하은

이사야서 강해

#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 (이사야 60장 4 - 9절)



이준운 목사

운동 경기에서 우리는 종종 역전승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는 듯하다가 마지막에 승리를 하는 것은 보기에 매우 기쁜 일입니다. 운동 경기에 역전승이 있듯이 인생에도 역전승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역전승을 한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어 역전승을 시키시었습니다.

사방에 빛을 발하는 예루살렘에는 멀고 가까운 곳에서 만민이 손에 보물을 들고 몰려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번영을 꿈꾸게 될 것이고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종말의 때에 세계 만민이 교회에 집결되어 영광된 모습을 보일 것을 말한 것입니다.

### 1.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4절).

하나님은 1절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나 영광의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눈을 들고 사면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면에서 모여오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부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과학의 교만을 심판하고,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심판하고, 온 천지 만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4절).

이방 나라 민족들이 이 복음을 믿는 참된 교회로 향하여 오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자녀가 될 자들(아들들)이 가까운데서 만이 아니고 원방에서까지 오리라는 뜻입니다. 또 '네 딸들은 안기워 오리라는 옆에 끼고 기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교회로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5절).

'네가 보고', 즉 교회를 향해 만민이 모여오는 광경을 보고 시온은 기뻐 약동하며 그들 마음은 기쁨으로 평창하게 될 것입니다. '놀란다'함은 기뻐 약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화창한다'함은 기쁨이 평창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와 같이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현실 보다 미래의 승리를 내다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가시밭 같은 현실도 굳건히 참아 나갈 수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날을 고대하면서 모든 슬픔과 아픔을 견디어내듯 교회는 마지막 심판 날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믿고, 그때의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기뻐하게 되리라는 예언인데 그 기쁨의 이유는 다음

신자는 현실 보다 미래의 승리를 내다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가시밭 같은 현실도 굳건히 참아 나갈 수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날을 고대하면서 모든 슬픔과 아픔을 견디어내듯 교회는 마지막 심판 날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믿고, 그때의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과 같습니다.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5절).

바다는 이방을 의미합니다. 또 풍부는 많은 무리를 말합니다. 많은 이방인들과 풍성한 재물은 세력 또는 보물이 교회로 몰려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만민에게 전하여 지고 세계 만민이 그들의 재력(물질)을 희생하여 주님께 바쳐 주의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사면을 보면 하나님과 그의 교회가 받을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 2.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7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계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웃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가 끼여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6-7절).

민족들이 자기들의 특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 바치게 됩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두라에게서 난 자손이고(창 25:2), '에바는 미디안의 아들입니다(창 25:4). 이들은 낙타를 끌고 다니는 상인이었고, 그들은 그가 소유한 것 중 가장 소중한 약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목숨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예를 원하십니다. '어린 낙타'는 짐을 질 수 있는 9세까지의 낙타를 말합니다.

'스바는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의 나라인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스바는 금과 유향을, 계달(계달과 느바웃

은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바벨론과 수리아 중간지대에 사는 유목민으로 매우 강대함)은 아라비아 사막 남쪽에 있는 나라로 양무리를, 느바웃(이스마엘의 자손으로서 아라비아에 있음)은 수양을 각각 바친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여호와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찬송하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내 영광이 집(나의 아름다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영적으로 왕성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 3.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저 구름 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8-9절).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니 바다에서도, 섬들도 교회를 사모하여 구름같이 교회로 몰려오는데, 비둘기가 제 보금자리로 날아오듯 세계만민이 구속자의 구원을 앙망하고 사모하며 교회로 몰려옵니다.

다시스는 서바나의 남쪽 해안인데 그 곳 배들은 많은 무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스의 배들은 물건을 싣고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체쳐놓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일을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방 교회가 왕성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시대에는 아직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 온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고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로서는 예언 성취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듯 당신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을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승리로 이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장애인 주일 특별 기획 기사

탐방 "사랑부"

## -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는 차별 없는 은혜의 통로.....

올해 다시 장애인의 날(20일)을 보냈다. 또한 4월 셋째 주일인 오늘은 장애인 주일이다. 이번 주간 종교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 곳곳에서는 많은 단체들의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가 이어졌고 TV에서도 앞 다퉈서 특집프로그램들을 연이어 내보냈다. 아마 이들 프로그램들로 인해 눈시울을 적신 이들도 적지 않았을 듯하다. 각종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외에도 공해 등 그 밖의 사회환경 때문에 장애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숫자는 대략 전체 인구의 3~10%인 약 100만~40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도 모른 채 절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교회는 이미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기 이전인 지난 92년 교회 설립 때부터 사랑부를 개교하고 재활복지기관과 연결하여 지체부자유자, 뇌성마비 등의 장애를 가진 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천국시민으로 대우하여 양육한지도 10년이 되었다.

지난주일, 초창기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여 이제 50여명의 학생과 30여명의 교사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모든 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오히려 우리 교사들이 이들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랑부의 예배는 예배실 뒷편에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는 휠체어 들만큼이나 흐트러짐 없이 조용하고 경건하게 드러지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팔과 다리가 뒤틀리고 얼굴은 일그러지며 때때로 땀 모를 괴성을 지르곤 한다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 사랑부의 극히 일부분의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비장애인들의 향념을 깨는 사랑부를 향 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입니다."라고 3년째 사랑부의 지도교역자로 섬기고 있는 이성득 목사는 이야기한다.

마침 생일잔치가 있어 교사들과 다른 학생들의 축하를 받으며 활짝 웃고 있는 생일울 맞은 사랑부 학생들에게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선 이들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더 이상 구제의 동정의 대상으로만 머물고 있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대상으로서 신앙교육을 받고 있었고 서로 교체하며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있었다. 진정 우리의 사랑부는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는 온갖 편견과 차별이 없는 은혜의 통로였다.

편집부(김시환)



### 청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홍유미 간사(에바다부)

#### 1. 청각장애란?

청각장애란 소리를 듣는 힘이 약하거나 완전히 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면 말의 억양이나 발음이 고르지 못하게 되고 적절한 언어 훈련을 받지 않고 방치하면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청각장애란 '의사소통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사용하여 청각장애인과 일반인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면 장애는 극복되고 큰 어려움 없이 청각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일하며 친교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 2. 청각장애인의 특징

- 1) 주의 집중이 힘들다.
- 2) 부를 때 대답하지 않는다.
- 3) 지시할 때 혼동을 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한다.
- 4) 흔히 질문에 틀린 대답을 한다.
- 5) 말의 표현이 빈약하고 생략된 발음을 한다.
- 6) 혼자 놀거나 사람을 피하며 곱이 난 사람처럼 보인다.
- 7) 쉬지 못한 것처럼 쉽게 피곤해진다.

- 8) 한쪽 귀가 듣는 기능이 없는 경우 소리나는 쪽으로만 머리를 돌린다.
- 9)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각장애인 가운데는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가 많다.

#### 3. 청각장애인과 대화시의 에티켓

- 1) 대화방법에는 구화법, 수화법, 필담 등이 있다.
- 2) 구화법은 입의 모양을 보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아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말을 하는 사람은 정면에서 입을 크게 움직이며 여유를 갖고 천천히 명확하게 이야기하라.
- 3) 수화법은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수화로 대화하는 것이다.
- 4) 필담은 손바닥이나 종이에 글자를 써서 읽어 주는 방법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정확히 전달된다.
- 5) 청각장애자는 다른 감각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가식적인 표현은 피해야 한다.
- 6) 청각장애인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경우는 보행 중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급한 일이 있으나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 7) 청각장애인이 말하는 사람 쪽을 향하여 보고 있을 때 말을 걸자.
- 8) 보통 크기의 목소리로 말을 하라.
- 9) 청각장애인의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정정하거나 못지 말자.
- 10)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건청인들과만 수화를

## 장애인(障碍人)과 장애우(障碍友)

요즘 우리는 장애인이라는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말보다는 '장애우'라는 약간은 다른 말을 흔히들 듣게 된다. 순례자는 이 장애인과 장애우라는 '글자 한자 차이'의 의미를 생각해보며 우리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와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국어사전에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이라고 나와있다. 그러나 이 말은 왠지 너무나 거리가 멀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타난 신조어로 장애우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다. 장애우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 모두가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바로 지금도 우리 사회는 장애우를 불구자, 병신 등 차별적이고 업신여기는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저 아이와는 놀아서는 안 돼, 병신이거든. 또 우리지역에 장애인 복지, 재활시설이 들어서면 집 값이 떨어지고 자식 교육에 안 좋다는 그릇된 집단이기주의 등등. 이 모든 잘못된 장애우에 대한 편견은 바로 우리의 뿌리깊은 유교적 사고방식에 기인한다. 인간을 사농공상의 철저한 계급으로 나누어 그 계급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깊이 박혀 장애우는 우리보다 못한 존재로 무시하고 학대해도 좋은 존재로 밖에는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려면 장애인을 장애우로 부르며 그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친구임을 알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씻어주어야 한다.

기독교 사상에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로 인간이 성별, 인종, 계층, 계급 등의 외적 조건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듯이 장애우도 그 장애 요인이 개인적인 실수이건 사회적 잘못이건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사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실례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청각장애인들은 건청인들이 자기를 욕하고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 11) 청각장애인을 부를 때 갑자기 다가가면 안 된다. 아무런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의 놀라움은 건청인이 생각하는 것 보다 충격이 크다.
- 12) 청각장애인이 전화를 부탁해 올 경우에는 그가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도와주어야 한다.
- 13) 청각장애인과 함께 있을 때 '소리로 인한 일이 생겼을 경우 건청인이 먼저 행동한 후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 한다.



▲ 2부예배시 수화로 예배드리는 에바다부

서울교회의 막내 교역자, 이태훈 전도사(33)은 조근아 사모님(31)과 작년 3월 31일, 대치동 예배당에서 1호로 회축을 밝히신 커플로 유명하시다. 얼마 전 부활절이 결혼 1주년이었는데, 전도사님 내외분은 저녁예배를 마치고 조용히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2000년 8월 1일 서울교회에 부임한 이래, 고등부와 필그림 찬양단, 글로리아 중창단을 맡고 계신 전도사님은 주일저녁 베들레헴 찬양대의 대원이기도 하시다. 중학교 때 변성기를 겪으면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달란트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라 믿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사하겠다고 기도하며 메달려 받은 찬양의 은사가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사모님 역시 어려서부터 서울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을 거쳐 지금은 성남시립합창단의 단원이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음악선생님, 언니 역시 성악가로 활동 중이시다. 이쯤 되면 전도사님 가정에서 즐겨 부르시는 찬송이 궁금해진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453장), 부모님이 늘 부르시던 그 찬송이 지금의 전도사님 가정의 찬송이 되었다고.

결혼 직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부모님을 뵈었을 때, 전도사님 내외분은 두 가지의 가르침을 받으셨다고 한다. 첫째는 주의 종이 되었으니 어려움을 걱정 말라는 가르침이었고,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 부모공경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 것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매주일 저녁마다 부모님 댁을 찾아 뵈고, 함께 식사하고 잠자며 다음날

### 교역자가정을 찾아서 -이태훈 전도사가정 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벽기도를 가는 생활은 그 후로 여겨본 적이 없으시다.

서울교회에 부임 후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전도사님 가정을 비롯하여 양가 부모님의 가정까지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환경보다는 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달았다.

작은 것에도 정직하고 진실한 아내, 어른 공경 잘하고, 새벽기도회 때마다 꼭 아침을 만들어주는 아내를 준비하고 보내주신 하나님이심도 깨달았다. 지난 1월, 1주일간 병상에 누웠을 때에도 사모님은 극진한 간호와 밤샘으로 전도사님을 돌보셨다고. 하여 가정의 신비함과 오묘함, 의지됨을 아픈 중에도 기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전도사님 가정의 기도제목은 2세대. (사모님은 곁에서 소곤소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 받는 목회

사역이 1순위라고 코치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가 창조되었듯이,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을 귀한 분(1)을 전도사님 가정으로 보내주실 것을 간구하고 계신다고. 전도사님 가정의 말씀은 "먼저 너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이다. 그러기에 전도사님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이다.

전도사님은 서울교회에서의 가장 인상적인 한 때를, 지난 대치동 교회당 입당예배에서 이종운 목사님과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우시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으신 사건을 지목하셨다. 짧은 인생을 산 두 분으로는 다 헤아리지 못할, 그래서 두근두근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장면이었기에 더욱 그리하시다고. 서울교회에서 배우고 감동한 것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다. 장로님들의 사역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여러 장로님들의 섬김의 모습들, 주의 종은 다르다는 것을 겸손 그 자체로 보여주는 여러 교역자님들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 성경강해의 진수를 보여주는 이종운 목사님.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은 성도님들께 다음과 같이 당부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세상 끝까지 충성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집부(나소정)

### 이제는 저도 섬기겠습니다

유복준 성도 (1교구)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교회의 한 지체로 연합한지 약 4주가 지날 즈음 새신자부 집사님으로부터 남선교회 주최 체육 잔치에 초청을 받고 4월 13일 수도공고에 도착하니 그곳에는 벌써 "서울교회 체육대회"라고 써여진 현수막과 행사를 위한 몇몇 집사님들께서 분주하게 운동시설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행사현상이 예상된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맑은 하늘과 쾌적한 날씨를 주셨다

"뜻을 합하여"(빌2:1-4) 라는 제목으로 이규정 목사님 말씀이 있은후 자리를 대회장으로 옮겨 선교회 간 대항전에 간단한 맨손체조로 경직된 몸의 근육을 풀고 순서에 따라 선교회 간 엄격한(?) 심판의 지시 하에 접전이 시작되었다. 각 선교회 선수들은 자기가 속한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뛰고 또 뛰었다. 시간이 갈수록 열기는 더해졌고 웃음꽃을 피우는 장면들이 하나씩 속출되었다. 아마 추어 경기였지만 운동경기에 임하는 모습들은 프로 못지않게 정정 당당하였으며 진지했다.

운동장에서의 모든 행사가 끝나고 시상식과 만찬은 교회 8층 만나홀에서 이어졌는데 담임목사님의 말씀과 더불어 체육대회 결과의 시상식이 이어졌다. 나는 뜻밖의 감투상(개인 소장 가능한 트로피 수상)이라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새신자란 이유로 신앙의 선배님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깊은 격려의 뜻으로 이해하고 싶을 뿐이다.

새가족부에서 서울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삶을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 중에 이 친선 체육대회를 통하여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과 가까운 친목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 벌써 서울교회의 오래된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편안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새신자의 위치에서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하자면, 그날 수도공고에서의 운동경기는 무질서함 속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상존하여 말씀의 권위가 있는 서울교회 를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갖기에 충분했고, 만찬과 시상식에서의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나눔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연상하기에 충분했다.

주님의 몸된 서울교회의 지체로서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와 예배의 훈련을 통하여 천국시민으로서 상급

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기 위해 나보다 여러 성도님 한분 한분을 섬기는 일에 경주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5일(목)한국장로교 연합회 정체성위원회 월례 모임을 소집한다.
- 이사: 마상수 집사, 김연숙 집사(7교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031-902-2966  
이명홍, 한형 성도 : 12교구 031-718-5990  
박도진, 김미영성도 12교구 031-745-7897
- 월체어 기증: 김태기 장로(1대) 김영주 집사(1대) 김복녀 권사(5대)루디아 여전도회(2대)

- ☎ 금주의 식사제공:송인련 집사윤숙지 집사가정 (어머니 최금자권사님의 생신을 감사하며)
- ☎ 21학기 목회자세미나 간식제공: 김시무엘 장로, 정경월 권사가정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1학기목회자세미나 · 성경대학 · 경로대학 · 주부대학을 위하여
2. 기도합주단(COP)의 성공적 조직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